



**운천저수지의 봄** '운천 저수지'가 새하얀 빛깔 섬으로 변했다. 선 거닐이자 휴일인 11일 오후 광주시 서구 운천 저수지에 놀러 나온 시민들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문해학교'도 초등 정식 졸업장

〈文解·어르신 한글학교〉

## 전남교육청, 6곳 학력인정기관 선정

**목포·화순·담양 공공도서관**  
**광양·고흥 평생교육관**  
**완도 신지동초등학교**

배울 기회를 놓친 성인·노인들이 정식 초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남도교육청은 "목포·화순·담양 공공도서관, 광양·고흥 평생교육관, 완도 신지동초등학교 등 6개 기관을 전남도교육청 지정 학력인정기관으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주로 노인대상 문해교육(文解教育·한글 깨치기)을 실시해

왔으나, 이번에 학력인정기관으로 지정돼 정식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됐다. 도교육청이 강사들의 인건비와 연간 운영비 500여만원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실상 학비도 면제된다. 학생들은 이들 기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인정 교재로 교육과정(3년)을 수료하면 초등학교 졸업장을 받는다. 그동안 전남지역 공공도서관, 평생교육시설에서 많은 문맹자, 고령자들이 문해교육을 받았지만, 검정고시를 거치지 않고서는 초등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을 수 없었다. 도 교육청은 고령자들에게 초등학력 취득의 기회를 열어줌으로써 향학을 북돋우고 평생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력인정기관 지정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도 교육청은 학력인정기관 심의위를 구성해 이들 기관의 운영을 뒷받침하고 교육과정 준수여부에 대한 감독도 실시한다. 현재 학력인정기관에서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입학할 희망할 경우 해당 교육기관에 문의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초등학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평생교육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제때 교육을 받지 못한 고령자들을 위해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대한항공機 '테러 위협' 캐나다서 회항

## 이륙직후 폭발물 전화에 밴쿠버섬 비상착륙

캐나다 밴쿠버를 떠나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72편 보잉 777 여객기가 10일(현지시간) 폭발물 테러 위협으로 미국 공군기의 호위 아래 밴쿠버 섬에 비상착륙했다고 캐나다 CBC 방송이 전했다. 11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 여객기는 이날 오후 2시30분 승객 149명을 태우고 밴쿠버 국제공항을 이륙했으나 대한항공의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사로 기내에 폭발물이 실렸다는 협박 전화가 걸려왔다고 방송은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여객기는 회항을 결정, 밴쿠버 북서쪽 120km 떨어진 밴쿠버 섬 공군기지에 비상착륙했다. 이 여객기는 미국 오리건 주 포틀랜드에서 비상출동한 미 공군 F-15기 2대의 호위를 받으며 밴쿠버 섬의 코크스 기지에 무사히 착륙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 측은 이 여객기에 대한 폭파 위협 전화가 전발에 이어 두 번째 연속해 걸려왔다고 말했다. 전남의 협박전화는 여객기 이륙 직전에 걸려와 캐나다 연방경찰이 폭발

물 탐지를 위한 기내 수색을 벌였고, 이 바람에 이륙이 2시간여 지연됐다고 관계자가 전했다. /연철뉴스

## 일당 계산 잘못됐다

## 시장 찌른 40대 검거

광양경찰은 11일 일당 계산이 잘못됐다며 고용주를 찾아가 흥기로 찌른 김모(42)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13분께 광양의 모 기계정비 회사에서 사장 이모(38)씨와 일당 계산 문제로 다투다 미리 준비한 흥기로 가슴 등을 수차례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후 자신의 집에 숨어 있다가 1시간여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는 사건 직후 인근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회복중이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자신이 생각한 하루 일당보다 이씨가 계산한 일당이 낮아 50여만원의 차이가 발생하자 이씨와 시비를 벌이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 폐업병원 건물서 관리인 목맨 채 발견

불이 난 폐업병원건물에서 목을 맨 50대 남성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새벽 4시18분 목포의 한 병원 건물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21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30여 분 만에 진화됐다.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 이 건물 관리인 A(59)씨가 건물계단에 목을 맨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

나 치료 중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병원은 폐업 상태며, A씨는 월급을 받고 건물을 관리하는 일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화인을 조사하는 한편 화재와 A씨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과 현장 감식을 의뢰했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u@

## 사망직전 1년간 진료비 평균 1000만원 쓴다

**심평원 분석...일반환자 9배** 사망직전 환자의 입원 진료비는 일반 환자에 비해 9.3배, 외래 진료비는 2.9배 더 많이 쓰는 셈이다. 연령별로는 35세 이하 사망직전 환자가 일반 환자에 비해 진료비를 63.8배 더 썼으며 35~39세(41배), 40~44세(37.6배) 등이 뒤를 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 "생애말기 치료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생애말기 치료에 급성기 병원 위주에서 완화의료(호스피스 치료) 등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철뉴스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04분 해질 19시 03분 달돋이 00시 12분 달지기 10시 28분

**꽃바람** 맑은 후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 지겠다.

지역	날씨	기온
광주	맑은구름	5/17℃
목포	맑은구름	6/14℃
여수	맑은구름	9/17℃
나주	맑은구름	3/18℃
완도	맑은구름	6/16℃
구례	맑은구름	4/18℃
강진	맑은구름	5/16℃
해남	맑은구름	3/15℃
장흥	맑은구름	3/17℃
순천	맑은구름	7/19℃
영광	맑은구름	4/16℃
진도	맑은구름	4/14℃
전주	맑은구름	3/17℃
군산	맑은구름	3/14℃
남원	맑은구름	1/17℃
홍산도	맑은구름	6/11℃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식중독지수 지외선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1.5~2.5m 주의를 높음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5m 1.0~2.0m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1.0m 목포 06:19 11:26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1.0m 여수 00:57 13:02  
서~북서 1.0~1.5m 07:10 19:04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3(금)	14(토)	15(일)	16(월)	17(화)	18(수)
날씨	☁	☀	☀	☀	☀	☀
최저/최고	7/16	7/19	8/20	10/21	12/21	12/22

# 119가 살렸다

## 신병 비관 극약 마신채 쓰러진 70대

### 목포 소방대원 위치 추적 극적 구조

**20년전 헤어진 아들 상봉도** 20년전 헤어졌던 아들과 상봉했다. 이후 김씨의 기도를 확보해 산소를 공급하는 등 응급조치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함께 김씨를 인근 병원으로 후송했다. 당시 출동했던 최영진 소방사는 "신고자가 김씨가 쓰러진 장소를 추상적으로 옛 해경 후문이라고만 말했는데 전화를 하면서 해당 위치에 도착할 수 있었다"며 "김씨가 목숨을 건져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편 목포경찰은 김씨가 20년전 가족과 헤어져 전국을 떠돌았으며 신병을 비관해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 했다는 사실을 알고 수소문한 끝에 지난 10일 서울에서 살고 있는 아들을 찾아주기도 했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u@

**태양광, 태양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제 전기세, 난방비걱정은 평생 끝!! 우리집 에너지는 내가 만들어 쓴다!

신속 계획중인 고객님께서는 더 많은 혜택을 드립니다!

겨울엔 난방! 여름엔 에어컨! 한수물! 도 태양열로~

발전을 시키려면 난방이 필수입니다!

설치전문업체가 국내 최저의 가격으로 최고효율의 태양광, 태양열을 설치할 절호의 기회를 드립니다.

주택용 태양광 한전 연계형 계통설비 (3kw이하~10kw이하)설치계통합니다. 최장 36개월 분할상환 가능

태양광발전(주택용) 설치 후 효과 (원 350kwh 생산 기준)

기준청구요금(사용전력량 : kwh)	설치시 청구요금	절감요금
5만원(약 321kwh)일때	약 1,130원	48,870원
10만원(약 454kwh)일때	약 8,020원	92,270원
15만원(약 531kwh)일때	약 18,380원	131,810원
20만원(약 597kwh)일때	약 31,010원	169,510원
25만원(약 662kwh)일때	약 47,440원	202,640원
30만원(약 728kwh)일때	약 66,850원	233,150원

어떠한 궁금점이라도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NAVER** 강남산업 검색

법인등록번호 : 409-86-22826 (주)강남산업 KANGNAM INDUSTRY

**상담문의 1588-4208** 010-3624-5399 010-4764-0531

대한불교조계종 문빈정사 남골당 허가번호 : 제2006-1

# 극락전 남골당

##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 무등산 문빈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범조를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 메가 벗겨진 묘, 동절기를 거치며 붕괴된 묘, 개인이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주의 및 친족, 이웃간의 상호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연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시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분토 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시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장례법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모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 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빈정사

무등산 문빈정사 남골당 전경

무등산 문빈정사 남골당 예약 및 봉안문의 062)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